"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

< 마태복음 6장 33절 >

- 추수감사주일 모아주신 곡식과 과일은 따밥 공동체와 여교역자 안식관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 어린이학교 학년말여행이 11월 19일(화)부터 2박3일간 고양, 일산에서 있습니다.
- 멋쟁이학교 6학년 졸업여행이 11월 17일부터 5박6일간 사이판에서 있습니다.
- 멋쟁이학교 2학기 학부모 모임이 오후 3시에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 공동체운영위원회 임시모임이 오후 1시 45분 자연예배당에서 있습니다.
- 공동체 김장이 21일(목)~22일(금)에 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정재훈(생일) 목사 · 장영미 사모 가정
최요한 목사 · 황성자 사모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김예흠 학생 (생일 감사)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1 - 46 호
2024년 11월 17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랑방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참된 삶에 대한 다짐
이렇게 살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 손에 제 자신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행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생명을 해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으며,
이웃 사람들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남들이 저에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육체의 욕구를 절제하며,
금식을 즐기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헐벗은 사람을 입히며, 병든 사람을 돌보고,
죽은 사람을 묻어 주며,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고,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세속적인 방법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분노에 압도되지 않고, 복수의 열망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다.
위선을 멀리하고, 거짓 평화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순결을 지키고, 맹세를 철저히 거부함으로써 거짓 맹세를 피하며,
악으로 악을 갚지 않겠습니다.

마음과 혀에는 늘 진실이 머물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입은 해를 견디며, 원수를 사랑하고,
저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복을 빌어주며, 정의를 위해 핍박을 견디고,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술 취하지 않고, 과식하지 않으며,

게으르지 않고, 노름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제게 혹시 선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리고, 제게 있는 악은 저 자신에게 돌리겠습니다.
심판의 불을 두려워하고, 지옥을 두려워하며, 영적인 갈망으로 영원한 생명을 열망하겠습니다.
매일 죽음의 가능성을 인정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행동을 살피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서나 저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마음에 일어나는 악한 생각을 쫓아내겠습니다.

혀를 지켜 사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많은 말을 피하고, 허튼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똑똑해 보이려고 말하지 않으며, 좋은 글을 골라 읽고, 자주 기도하겠습니다.
제 죄에 대해 매일 용서를 구하며,
제 생활을 고칠 방법을 찾겠습니다.

모든 일에 지도자들을 따르며, 거룩해 보이기보다는 거룩해지는 것을 구하겠습니다.
선한 일로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하며, 순결을 사랑하고, 어느 누구라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으며, 싸움을 멀리하고,
교만을 싫어하겠습니다.
나이든 사람을 공경하며, 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 결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베네딕투스의 기도

한주간의 말씀

"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

<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 >

〈 수요기도회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591 527 / 447
기도 :
성경 : 에스겔 18장
제목 : 회개, 죄에서 돌이켜라

1-4 공평하신 하나님
해석: 하나님 앞에서 모두 평등하다.
적용: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자랑, 비교하지 말자.

5-18 3대에 걸친 예
해석: 신앙적으로 좋은 부모, 그렇지 않은 부모와 상관없이 자녀들이 말씀대로 사는 가로 판단한다.
적용: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자. 부모, 지인의 덕을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자.

19-24 죄의 책임(문제제기)
해석: 하나님께서는 연대책임을 묻지 않는다. 현재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야 한다.
적용: 관습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면 의미를 알고 행동하자.

25-32 돌이켜 부르시다.(회개)
해석: 과거에 얽매여 살지 말고 현실을 잘 살기 위하는데 있다.
적용: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라.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두지 말자.

회사 주변 풍경

회사가 남산이 보이는 서울 시내에 있다 보니, 출근길에는 어김없이 외국인 관광객을 만날 수 있다. 지하철역에서 나오면 바로 보이는 호텔 앞에 여러 명이 나와 버스를 기다리기도 하고, 호텔 앞에 있는 커다란 조형물(손가락 하트를 날리고 있는 거인)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는다. 그곳을 지나다 보면, 중국어, 일본어, 영어는 물론이고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다양한 외국어가 들린다. 심지어 어느 나라 언어인지도 모르는 말까지.

나이 지긋한 노부부, 젊은 연인, 유모차를 모는 부부, 다정한 모녀 등이 어디로 바삐 가거나 이곳저곳 사진을 찍는다. 특히 보행자 신호등이 동시에 켜지는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건널 때 사진을 찍기도 한다. 이 많은 사람이 왜 우리나라를 찾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우리나라가 그만큼 관광할 만한 나라가 됐다는 게 자랑스럽게 느껴진다.

요즘 날씨는 가을치고는 덥기도 하다. 관광객의 옷차림도 민소매부터 패딩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변덕스러운 날씨를 경험하며 약간 괴롭지는 않을까. 올가을은 예년에 비해 더운 편이라 단풍이 곱게 물들지도 않고 그 색도 예쁘지 않다. 점심 먹고 항상 산책을 나서는데, 근처에 있는 남산한옥마을을 자주 찾는다. 물론 이곳에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데, 한복을 빌려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한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도 한다. 멀리 남산타워도 보이니, 흥미로운 사진이 나올 것 같다.

무엇보다 한옥마을에 갖춰진 자연이 좋다. 빨간 단풍, 노란 단풍, 푸른 소나무 등이 졸졸 흐르는 개울과 어우러져 걷기 좋은 산책길을 이루고 있다. 그런 길을 오르락내리락하다 보면 점심 먹은 게 소화도 되지만, 정신이 맑아져 기분이 좋아진다. 회사 일을 비롯한 여러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느낌이 든다. 역시 사람은 자연과 함께해야 하나 보다. 그러고 보면 매주 주일마다 교회를 찾아가는 이유도 그곳에 자연이 있기 때문이다.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더 좋겠다.

비움사랑방 이충환 집사

주일공동예배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오전11시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시 편 34 : 1-5	인도자
*예배의 찬송	9	다함께
*기원의 기도		인도자
*기원찬송	영광 영광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참회의 기도		
*용서의 말씀	요한복음 8 : 11	인도자
*신앙고백		다함께
고백의 찬송	15	다함께
공동기도		다함께
목회기도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고린도전서 1 : 26-31	설교자
성가대 찬양	292	그루터기사랑방
설 교	"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의탁의 기도		설교자
응답의 찬송	94	다함께
*봉헌기도		인도자
*영광찬송	438(1)	다함께
*위탁의 말씀		설교자
*강복기도		설교자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윤호중 하경임 / 봉헌위원 : 이어람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공동기도문

저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고린도교회 문제. 고린도 전서 1장에서 맨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언급한 문제는 바로 분열의 문제입니다. 자신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라는 지역의 특성과 문화적인 배경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발생하였습니다.

부르심의 은혜, 교회로의 부르심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이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사람들끼리 파당을 지어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올바른 관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자랑. 파당의 문제 속에 숨어있는 욕구는 은근한 '자랑'입니다. 은혜와 자랑은 서로를 약화시킵니다.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할 때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진정한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참된 관계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갑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석용범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요즘 꾸러기들이 즐겨하는 놀이 중 하나는 미니카를 접어서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지음이가 미니카 접는 법을 익힌 후에 자기가 접은 미니카를 선물도 하고 형들과 아름이에게 접는 법을 가르쳐주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한 시간이 넘도록 지음이가 차근차근 미니카 접는 법을 가르쳐주고 룩이, 이든이, 아름이가 가르쳐주는 대로 미니카를 접는 놀라운 풍경도 보았습니다.

언니 오빠 옆에서 막내 하온이도 제법 능숙한 가위질을 하며 열심히 무엇인가를 만듭니다. 미니카 모양을 흉내내어 만든 후 선생님들에게 선물이라고 가져오기도 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박스 가지고 놀기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자르고 뚫고 붙이고 색칠하고 끈을 끼워서 가면 방패 보드 버스를 만들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너덜거리는 박스 조각이지만 꾸러기들에게는 스스로 만든 소중한 장난감이자 뿌듯한 작품이기에 신나게 가지고 놀다가 보물처럼 챙겨서 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11월도 중순을 넘었습니다. 학년말이 가까워지니 마음이 더 바빠지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가을이 무르익어서 살짝 춥기까지 합니다. 아이들의 옷차림이 다양했답니다.

월요일엔 하경임 선생님 생일축하가 자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며 생일을 축하하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축복받은 사람도, 축복하는 사람도 이 시간들을 기억하여 어린이학교의 모두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길 바랍니다.

화요일은 성서일기 시간과 연산시간에 날이 너무 좋아 아이들에게 자유 시간을 주었답니다. 아이들은 또래끼리 서로 정답게 가을의 느끼고 우정을 쌓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수요일엔 성서일기 시간에 학교와 가정에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지 못한 분들께 감사의 내용을 포스트잇에 적고 붙이며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1월 19일(화) ~ 21일(목)까지 학년말여행을 고양(일산)으로 다녀옵니다. 기온이 많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추억 쌓을 수 있는 여행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이현숙 >

멋쟁이학교

멋쟁이들의 마음은 한층 숨가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30일(토)에 있는 종강발표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멋쟁이들의 한 주간 생활표어는 "차분하게 생활하자"였습니다.

이번 목요일 열린수업 시간에는 '멋쟁이 감사제'라는 이벤트를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장을 열고, 모두가 개인 작품(글, 그림)과 학년별 찬양을 함께 나누는 이벤트였습니다. 많은 고민과 정성이 담긴 나눔들로 인해, 참 훈훈하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중 투표를 통해 이홍인 멋쟁이, 박지호 멋쟁이, 김가온 멋쟁이가 각각 다채로운 이름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다가오는 주간에는 학기말 학생 자율평가서 작성과 김장이 함께 있습니다. 학기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인 만큼, 정성을 다해 임하면 좋겠습니다.

6학년은 목요일에 있던 수학능력시험을 잘 치렀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모두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그동안 멋쟁이들은 매일매일 멀리서나마 열심히 응원하고 기도해주었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간의 수고를 잠깐 잊고, 졸업여행을 이번 주일에 떠나게 됩니다. 최기찬 선생님과 5박6일 동안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이어진 >

선물같은 날

오늘은 생활공동체에서 환영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루터기에서 함께 할 새 가족과 멋쟁이교사로 다시 합류하시는 분의 컴백을 반기는 날이자 로마에서 쉐프로 일하는 그루터기의 듬직한 성흠이가 함께 한 날입니다. 쉽지 않은 공동체생활인 줄 잘 알고 있을 텐데 마음 정해 주신 산이네 가족과 멋쟁이에서 교사로 섬겨주시려고 오신 조민아 선생님께 축복과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점심을 준비합니다.

점심을 준비하려고 주방에 들어서니 나집사님이 진작부터 싱크대 수전을 교체하고 계셨어요. '에구 같이 하시지 오늘도 혼자서 일하시는군' 싱크대가 깨끗해진 덕분에 저희는 즐겁게 야채를 다듬으며 아이들 얘기로 잔치의 맛을 살렸답니다. 점심에 필요한 고기.김치.과일.국,후식,음료,호박죽등은 각 가정에서 내겠다고 자원하여 풍성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공동체 마당에서는 남자 분들이 고기를 맛있게 굽고 아이들은 음식을 척척 나르며 상을 차립니다.

오늘은 생일 맞은 분들이 있어서 생일축하도 함께 했는데 날씨까지 이쁜 가을날이라서 축복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점심 후에는 남자어른들과 아이들이 족구시합을 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누군가는 오늘이 특별한 선물 같다고 했습니다. 쉼이 있는 날이라고 행복해합니다. 공동체 식구들은 여름부터 제대로 쉴 틈 없이 지내왔는데 이렇게 일없이 편한 시간을 보내게 되니 보기 만해도 참 편안합니다.

저는 밖에서 일하니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말없이 감당해 주시고 견뎌주시는 식구들에게 늘 빚진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사랑방식구들에서 오늘처럼은 아니어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선물 같은 날을 많이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루터기사랑방 정혜정 권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정다운 전도사
찬 송 : 591장, 357장
성 경 : 시편 50편 23절
말 씀 : 믿음의 제사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중국 차량돌진 사고의 희생자들을 위해>
   11일 광동성 주하이시 체육센터에 저녁시간 운동하던 사람들을 향해 차량이 돌진하여 35명이 사망하고 43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허망하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친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중국의 교회들을 위해>
   최근 중국에 강력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중국 사회에 위험 속에서도 해야 할 일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 중국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1) 멋쟁이학교 6학년의 수능시험과 졸업여행을 위해 기도합시다.
   2) 추워지는 날씨 속에 몸이 아픈 지체들의 위해 기도합시다.

< 생활공동체 소식 >

겨울이 오는 것인지 안 오는 것인지 날씨가 다시 따뜻해지면서 배추에 씌워 놓았던 비닐을 다 벗겼습니다.

이번 주 부터는 영하로 떨어져서 추워진다고 하니 가을과는 이별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생활공동체는 여러가지 축하할 일로 함께 모여서 잔치 아닌 잔치를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함께 하는 자리가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생활공동체 자녀들까지 모두 함께 하니 더욱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함께 사랑을 나눠가면 좋겠습니다.

<장영미 전도사>